

# 철학의 근본문제를 순수 인간문제에 귀착시키는 철학적인간학의 주장의 반동성

홍 일 호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우리 나라를 고립압살하기 위하여 정치, 군사, 경제적 압력과 봉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썩어빠진 반동사상문화를 쉬임없이 들이밀고있다.

제국주의사상문화적침투를 반대배격하는것은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강성 국가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제국주의자들이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는 사상문화적침투를 철저히 분쇄하기 위하여서는 현대부르조아철학리론들 특히 철학적인간학의 허황성과 반동성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간철학은 세계관을 주는 과학으로서의 철학의 본래의 사명을 부인하고 주로 인간이란 무엇이며 인생이란 어떤것인가 하는 문제를 론하는 하나의 인생철학입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6권 138~139페이지)

철학적인간학은 20세기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광범하게 류포되면서 사람들에게 해독적 영향을 미치고있는 현대부르조아인간철학의 한 조류이다.

철학적인간학은 도이칠란드의 철학자 막스 쉐레르(1874-1928)에 의하여 1930년대에 제창되였다. 그의 주요저서는 《우주에서 인간의 지위》, 《철학적인간학》 등이다.

막스 쉐레르에 의하여 제창된 철학적인간학은 초기에는 그 주장의 신비주의적성격과 당시 자본주의사회에서 지배적지위를 차지하고있던 실존주의사상때문에 독자적인 사조로서 공인되지 못하였지만 1960년대에 실존주의가 쇠퇴하면서부터 널리 류포되였다. 특히 도이칠란드의 헬르트 플레쓰너(1892-1985), 아놀드 게헬렌(1904-1976) 등에 의하여 20세기 후반기에도 계속 전파되였다.

철학적인간학은 철학을 순수 인간문제에 귀착시키면서 세계관을 주는 과학으로서의 철학의 본래의 사명을 부인하고 사람들을 혁명투쟁에 떨쳐나설수 없게 하는 비과학적이며 반동적인 철학이다.

철학적인간학의 반동성은 철학의 근본문제에 대한 견해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철학적인간학은 철학의 근본문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쉐레르는 《철학적인간학》에서 《철학적인간학이 문제로 하는것은 모든 철학적근본문제가 거기에 귀착하는 유일한 문제 즉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라고 썼다. 한마디로 말하여 그는 철학의 근본문제를 순수 인간문제에 귀착시키였다.

철학의 근본문제를 순수 인간문제에 귀착시키는 철학적인간학의 주장의 반동성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세계관을 주는것을 통하여 인간의 운명개척에 이바지하는 철학의 사명을 부인한다는데 있다.

쉐레르는 모든 철학적문제들은 《인간문제》로 환원될수 있으며 인간이 철학의 유일한 대상으로 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지난 시기 유럽의 모든 철학은 우주의 존재론, 절대적존재론, 인식론 등이였지만 현대의 형이상학은 벌써 우주론도, 대형이상학도, 존재론도, 인식론도 아니며 그것은 인간형이상학으로 된다는것이다. 이로부터 그는 《철학의 인간학적환원》에 대하여 주장하였다.

이처럼 철학적인간학은 세계관적문제를 순수 인간문제에 귀착시키면서 철학의 근본

문제를 《인간학》으로 전환시켰다.

그러나 철학의 근본문제를 순수 인간문제에 귀착시키는 철학적인간학의 주장은 철학이 세계관을 주는 과학으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없게 하는 비과학적이며 반동적인 궤변이다.

철학은 다른 개별과학과 달리 세계관을 주는것을 통하여 인간의 운명개척에 이바지하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한다.

사람의 운명문제에 대한 해답은 세계관에 의하여 주어진다. 그것은 사람이 세계속에서 살기때문이다. 사람은 주위세계가 자기의 운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때문에 과학적 탐구를 하는것이며 운명개척에서 나서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명하기 위하여 세계관적문제들도 연구한다.

인류가 오래전부터 세계를 알기 위해 노력하여온 근본목적은 사실상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길, 운명개척의 근본방도를 알기 위해서였다. 운명의 주인이 누구이며 운명개척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이 누구인가 하는 사람의 운명문제에 해답을 주고 사람의 운명개척의 근본방도를 밝히는 문제는 오직 철학적세계관에 의해서만 이론적으로 해결된다. 인간이 최대의 관심을 가지는 운명개척의 길을 세계관적으로 밝혀주는데 철학의 근본사명이 있다.

철학이 자기의 근본사명에 맞게 운명개척의 길을 밝혀주는 세계관을 확립하자면 근본문제부터 옳게 설정하여야 한다. 철학의 근본문제는 철학상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서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가장 기초적이고 출발적인 문제이다.

철학상에는 세계란 무엇이고 어떻게 변화발전하는가, 사람이 세계를 어떻게 보고 대하여야 하는가를 비롯하여 풀어야 할 문제들이 수없이 많다. 철학에서 풀어야 할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들의 밑바탕에 놓여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출발적인 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라고 한다.

철학의 근본문제를 무엇으로 내세우는가에 따라 해당 철학의 특징과 내용, 그 과학성과 보편성이 좌우된다. 철학의 근본문제를 무엇으로 제기하는가 하는데 의하여 해당 철학이 인간의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근본적인 의의를 가지는 문제들을 제기하고 논의하는 완성된 철학으로 될수도 있고 부차적이며 개별적인 문제들만 논의하는 일면적인 철학으로 될수도 있다.

철학의 근본문제가 정확히 제기되면 해당 철학의 전반체계와 내용이 사람의 운명개척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이루어질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해당 철학이 인간의 운명개척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거나 지어는 인간의 운명개척에 장애를 주는 철학으로까지 될수 있다.

철학의 근본문제는 인간의 운명개척의 길을 밝혀주어야 할 철학의 사명에 맞게, 세계관을 주는 학문으로서의 철학의 본성에 맞게 제기되어야 옳바른것으로 된다.

그런데 철학적인간학은 철학의 근본문제자체를 순수 인간문제에 귀착시킴으로써 애당초 세계관적문제를 논의할수 없게 하고있다. 철학적인간학은 인간을 중시하는듯 한 외피를 쓰고있지만 사실상 세계관적문제에 대한 연구자체를 거부하고있는것이다.

셸레르가 《철학의 인간학적환원》을 들고나오면서 《인간중심론》을 제창하고있지만 그것은 객관세계에 대한 분석을 거부하고 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지위와 역할을 외곡하는 반동적인 견해이다.

철학이 옳바른 세계관을 주려면 순수 인간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문제

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제기하여야 한다. 사람은 세계속에서 살고 발전해나가며 인간의 운명은 세계와의 관계에서 규정되는것만큼 인간의 운명개척의 길을 밝히려면 세계와 사람과의 관계문제, 세계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지위와 역할문제를 풀어야 한다.

세계관적문제를 외면하고 철학의 근본문제를 순수 인간문제에 귀착시키는 철학적인 인간학의 주장의 반동적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른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할수 없게 하고 자본주의사회의 반동적본질을 똑똑히 파악하지 못하게 하려는데 있다.

철학의 근본문제를 순수 인간문제에 귀착시키는 철학적인 인간학의 주장의 반동성은 다음으로 인간을 세계의 근원으로 봄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주관관념론에 빠져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기 위한 실천투쟁에 멀쳐나설수 없게 한다는데 있다.

셸레르가 철학의 인간학적환원을 제창하게 된 주되는 근거는 세계관이 인간관에 귀착된다고 본데 있다. 그에 의하면 세계관이 인간관에 귀착되게 되는것은 인간이 세계의 근원이기때문이다. 인간이 세계의 근원으로 되게 되는것은 모든 물질적존재가 다 인간과 관계되며 인간의 존재에 의존하고있기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그는 《온갖 존재와 그 방식은 인간의 정신적 및 육체적조직에 적응하는것이며 인간적존재로부터 잡아낸 략도이며 절취이다.》, 《모든 존재형식은 인간의 존재에 의존한다.》라고 썼다.

이것은 그가 《인간중심론》의 미명밑에 종래의 신학적세계관에서 제창한 신중심론을 교활하게 개악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신학이 신을 전지전능한 존재로 보면서 세계의 존재와 변화의 근원으로 보는것과 마찬가지로 그는 사람이 물질세계발전의 특출한 산물이라는것을 외곡하여 마치 인간이 신과 같이 세계의 근원으로 되는듯이 주장하였던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인간은 《소우주》와 같다고 하였다.

그러나 셸레르의 이러한 주장은 세계의 지배자, 개조자로서의 인간의 지위와 역할을 외곡하는 비과학적이며 반동적인 궤변이다. 셸레르의 주장은 인간과 신의 위치를 바꾸어 놓은데 불과한 신학적세계관의 변종이며 유아독존적세계관을 설교한 주관관념론의 재판에 불과하다. 인간은 세계의 지배자, 개조자이지만 신학자들이 제창하는 신적존재는 아니다. 신학에서 설교하듯이 세계가 인간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거나 물질세계의 모든 변화발전이 인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것은 아닌것이다.

주체철학이 밝힌 세계가 사람에 의하여 지배된다는것은 세계가 사람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실현하는데 복무하게 된다는것이다. 즉 사람이 세계의 주인의 지위에 있고 주위세계는 사람에게 복무하는 대상으로 되고있다는것이다.

사람이 출현하기 이전의 세계에는 그 어떤 지배와 복종의 관계도 없었다. 사람이 발생하기 이전의 세계는 자연적존재만으로 이루어져있었으며 그것들은 단순히 서로 의존제약하는 관계에 있었다. 사람이 출현한 때로부터 세계는 사람을 주인으로 하는 세계로 그 면모를 달리하게 되었으며 사람과 주위세계사이에는 단순한 호상작용이 아니라 지배하고 복종하는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세계가 사람에 의하여 지배된다는것은 세계의 모든것이 현실적으로 다 사람에게 의하여 지배되고있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복무하는 세계의 영역은 끊임없이 넓어지고있지만 세계에는 현실적으로 사람의 지배영역에 속하지 않는것들이 수없이 많다. 사람은 아직 자연의 운동법칙을 완전히 조절통제하지 못하고있으며 지진, 해일,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도 다 막지 못하고있다. 력사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 세계가 사람에게 지배되는 범위와 영역은 제한되어있다.

주체철학이 밝힌 세계가 사람에 의하여 개조된다는것은 세계가 사람의 목적의식적인 활동에 의하여 사람의 요구에 맞게 개편되고 리용되게 된다는것이다. 사람은 세계의 개조자이고 주위세계는 사람에 의하여 개조발전되는 대상이다.

사람이 발생하기 이전의 세계에는 그 어떤 특정한 존재에 의하여 다른 존재, 주위환경이 개조되는 관계가 없었다. 일련의 동물들의 특이한 활동에 의하여 주위환경이 변화되는것과 같은 현상들은 모두 사물현상들의 단순한 호상작용의 결과에 이루어지는 자연적인 변화이다. 무생명물질의 운동은 더 말할것도 없고 보다 발전된 생명물질인 동물의 활동에 의하여 일어나는 어떠한 변화도 결코 목적의식적이며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개조가 아니다.

그러나 세계가 사람에 의하여 개조된다는것은 결코 세계의 모든 변화가 다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물질세계에는 사람의 작용이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진행되는 물질적존재들의 운동변화가 얼마든지 있다. 태양의 운동변화나 계절의 변화와 같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운동만 놓고보아도 세계가 자체의 운동법칙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발전한다는것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다.

세계가 사람에 의하여 개조된다는것은 세계가 사람의 결정적작용에 의하여 개조발전된다는것이지 결코 온갖 운동변화가 다 사람에 의하여 좌우된다는것이 아니다.

철학적인간학은 인간을 《중시》한다고 하면서 종래의 주관관념론적주장을 되풀이하고있다.

근대영국철학자 조지 버클리(1685-1753)와 같은 주관관념론자들은 인간의 주관적 의식이나 감각과 같은것을 절대화하여 인간의 주관을 세계의 근원으로 내세웠다.

셸레르의 주장은 근대영국주관관념론자들과 일정한 차이는 있지만 역시 인간의 정신적 및 육체적활동을 절대화하면서 마치도 인간이 세계의 모든것의 근원으로 되는듯이 외곡하고있다. 그가 인간을 《소우주》라고 한것은 철학적인간학의 극단적인 주관관념론적성격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물론 사람은 가장 발전된 물질적존재이며 사람의 유기체는 발전된 진화의 최고산물이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물질세계발전의 특출한 산물이라고 하여도 물질세계전체를 대신할수 없으며 사람에 대한 견해가 곧 세계관으로 될수는 없다. 결국 철학적인간학은 사람을 전면에 내세운다고 표방한 종래의 인간철학과 마찬가지로 세계관을 주는 과학으로서의 철학의 본래의 사명을 부인하고 주로 인간이란 무엇이고 인생이란 어떤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하는 하나의 인생철학에 귀착되고말았다.

주체철학은 력사상 처음으로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를 밝혔다. 주체철학의 근본문제는 순수 인간문제가 아니라 세계와 사람과의 관계문제이며 주체의 철학적원리는 단순히 인생관이 아니라 세계관을 밝힌 원리이다.

주체철학은 사람중심의 세계관, 주체의 세계관을 밝힌 철학이다.

사람을 위주로 하여 세계에 대한 견해, 관점과 립장을 새롭게 밝힌 주체철학은 사람들이 세계를 옳바로 인식하고 개조하여 자기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가기 위한 가장 위력한 무기이며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철저히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철학이다.

우리는 철학의 근본문제에 대한 철학적인간학의 주장의 허황성과 반동성을 똑똑히 알고 철학의 사명과 본성에 맞게 사람을 위주로 하여 철학의 근본문제를 가장 과학적으로 제기한 주체철학의 순결성을 철저히 옹호고수해나가야 할것이다.